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4.4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산업계

- 5분 충전에 700km"...현대차, 신형 수소전기차 넥쏘 공개[서울모빌리티쇼] ('25.4.3, 아시아경제)
 - 현대자동차가 5분 내외 충전에 주행거리 7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전기차 신형 넥쏘를 3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
 - 현대차는 신형 넥쏘에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-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을 90%까지 끌어올렸으며, 이를 기반으로 최고 모터 출력 150kW를 달성했으며, 이는 기존 모델 대비 시스템 효율은 1.3%p, 모터 출력은 25% 향상된 수치
- 롯데케미칼, 수소 밸류체인 완성...올해 출하센터·발전소 잇따라 가동 ('25.4.3, 디지털타임스)
 - 롯데케미칼이 '2025 서울모빌리티쇼'에 처음으로 그룹과 함께 참여하며 수소사업의 확장 의지를 드러냄
 - 올해 상반기 대산 수소출하센터와 하반기 울산 연료전지 발전소를 잇따라 가동하면서 부생수소를 활용한 생산과 유통, 활용의 밸류체인을 본격화할 전망
 - 롯데 수소 밸류체인은 대산 수소출하센터와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, 수소 충전소, 수소 화물차 등 4가지로, 수소의 생산부터 출하, 연료전지 발전, 충전, 물류까지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의지를 강조

□ 기관

- **캠코, 업무용 모든 차량 '수소·전기차' 전환**(25.4.3, 헤럴드경제)
 -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업무용 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
 - 이번에 도입하는 수소전기버스는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2배 수준으로 길고 충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음
- **한국자동차환경협회, 전세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활성화 추진' 맞손'**(25.4.2, 에너지데일리)
 - 한국자동차환경협회(회장 정종선)는 2일 윈더모빌리티, 코하이젠, 수소에너지네트워크, SK이노베이션 E&S, 효성하이드로젠, 롯데에어리퀴드에너지하이와 '전세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'을 체결
 - 주요 협약 내용은 ▲상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▲대규모 전세 수소버스 도입 ▲수소버스 수요 협력을 통한 전세 수소버스 시장 활성화 ▲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

□ 지자체

- **국내 최대 규모 울산명촌 수소충전소 운영**(25.4.3, 국민일보)
 - 울산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인 울산명촌 수소충전소가 7일부터 본격 운영
 - 대용량 수소충전소 전문 구축·운영 업체인 코하이젠(주)이 지난 2023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초 준공
 - 울산명촌 수소충전소는 10.5km의 지하 배관을 통해 수소 생산공장에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방식으로 하루에 버스 포함 대형 화물차 360대, 승용차 14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

□ 인터뷰

- **김재홍 수소연합 회장 "한국은 말뿐인 수소선도국.. 초기 인프라 투자없인 日뺏겨"**(25.4.3, 머니투데이)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- 인도 정부, 2차 그린수소 보조금 입찰에서 9개 기업에 총 2억 6천만 달러 규모 지원 확정(HydrogenInsight, 25.3.20)
 - 인도 정부는 두 번째 그린 수소 보조금 입찰*에서 9개 기업에 3년간 총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
 - * 그린수소 보조금 입찰: 인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참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(보조금 금액)을 제시하는 절차, 각 기업은 3년간 매년 수소 생산 단위당 보조금을 요청하고, 전체 평균 보조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입찰 진행
 - 경매는 두 가지 카테고리(버킷)로 진행됨
 - * ▲모든 기술 기반 Bucket 1: 8개사 선정 ▲바이오매스 기반 Bucket 2: Matrix Gas&Renewables가 1,500톤 연간 생산 용량 확보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- 독일 수소 코어 네트워크(HCN), 첫 55km 구간 가동(FuelCellsWorks, 25.3.31)
 - 독일 전력망 운영기업 노웨가(Nowega GnbH)는 니더작센州를 연결하는 55km 구간의 수소 코어 네트워크(HCN)*를 첫 가동했다고 발표함
 - * 원독일 수소코어네트워크(Hydrogen Core Network, HCN):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환 및 신규 구축을 통해 총 9,040km 규모로 수소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▲EU 30억 유로 규모 국가지원 승인('24.6) ▲독일연방네트워크청 건설 승인('24.10)
 - 니더작센州 국무차관 프랭크 두즈는 "필요한 파이프라인을 지역 내에서 전환·구축해야만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"며 이번 네트워크 가동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함
 - 해당 네트워크는 에너지 기업 RWE의 300MW 전해조 시설과 연계되어 '25년 후반 그린 수소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며, 추가 확장은 에너지 인프라 기업 OGE와 협력하여 추진될 계획임